문예진흥원의 기록과 업적을 바탕으로 꽃핀 한국음악계

이석렬 음악평론가

culture | art

음악단체의 재정에 도움을 주고 음악인구의 저변 확대를 다지는 기반사업으로서의 '음악공연 지원' 은 한국의 예술음악 공연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문예진흥원의 지원이 없었다면 그러한 행사들을 구심점으로 성장했던 한국 음악계의 인적 · 물적 인프라는 상당 부문 성장이 제한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새롭게 출발하는 예술위원회는 과거 문예진흥원의 업적을 바탕으로 국가의 문화적 발전에 보다 생산적으로 접근해야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닌다.

문예진흥원의 업적과 전통

지난 1973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예진흥원)이 개원한 이래 음악 분야에 지원한 내용과 흐름을 분석해보면 문예진흥원이 예술음악계를 지원하는데 무게를 두었던 세 가지 상위기념을 알 수 있다. 그것들은 '창작음악의 활성화' 와 '공연예술의 국제 교류' 그리고 '예술음악의 사회적 보급' 이었다. 문예진흥원은 그런 상위개념들을 바탕으로 삼고 구체적인 공연들을 선정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계속해왔다. 2002년부터는 새로운 분류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원사업들을 선정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예술의 창조역량 강화' ' 예술의 접촉기회 확대' '예술의 보존과 발전적 계승' '문화적 조화를 위한 예술의 역할 증진' 이라는 각각의 테마를 가지고 있다.

이 네 개의 테마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진 하부 지원부문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 하부 지원 단위에서 보다 자세한 분류가 이루어진다. 2002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시스템은 그 이전 30년간의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분류 체계라고 여겨진다. 3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지원부문들의 명칭이 달라지긴 했지만, 문예진흥원의 취지에는 일관된 테마와 방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창작음악에 대한 지원의 경우를 보면 대한민국작곡상, 서울창작음악제, 창작공연활성화 지원, 음악창작 지원,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지원, 우수레퍼토리 지원 등의 항목으로 나뉘어져 실행되었으며 창작음악분야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순수 창작음악에 대한 기업과 개인의 후원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문예진흥원의 지속적인 지원은 현재까지 한국 창작음악계의 발전을 도모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여겨진다. 문예진흥원의 지원을 받은 작곡 단체들이 예술적 의미와 지속성을 함께 추구하는 행사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 한국 창작음악계의 인프라 형성에 문예진흥원의 지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창작음악 분야 외에도 문예진흥원은 개원 이래 수많은 음악단체와 음악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왔고, 그로 인해 개최되고 활성화될 수 있었던 음악회는 수 없이 많았다. 가령 '음악공연 지원' 부문의 경우 1974년부터 2001년까지 모두 663건의 공연에 2,462,768,000원의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순수예술의 유지와 확산 차원에서 음악단체의 재정적 차원에 도움을 주고 음악인구의 저변 확대를 다지는 기반사업으로서의 '음악공연 지원' 부문은 한국의 예술음악 공연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과 기록으로 볼 때 문예진흥원의 지원이 없었다면 그러한 행사들을 구심점으로 하여 성장할 수 있었던 한국 음악계의 인적 · 물적 인프라는 상당 부문 성장이 제한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새롭게 출발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원회)는 과거 문예진흥원의 기록과 업적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의 문화적 발전에 보다 생산적으로 접근해야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예술위원회에 대하여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문화예술인들의 권한과 책임 하에 국가 차원의 예술 지원을 실행하는 예술위원회가 발족됐다. 예술위원회의 취지와 목적에는 예술 지원정책 시스템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예술진흥을 위한 정책 입안과 지원, 그리고 평가 작업에 예술인들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부여한다는 성격이 배어 있다. 예술위원회는 예술 현장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로 구성된 11명의 위원들이 합의를 통해 문화예술정책을 이끌어내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민간이 공공영역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공공영역이 민간에 참여하는 동시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급속히 변화하는 문화예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문화예술이 처한 각종 환경에 대한 현장 중심의 구체적인 대안 생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취지다. 현장의 상황과 분위기를 숙지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그동안의 경륜과 소양, 문화계에 대한 현장 중심의 인식 등을 전제로 하여 국가의 재원을 문화계에 투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맞춰 음악계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예술위원회의 과제와 방향에 대한 소견을 기술하고자 한다.

인식의 차원이 실천의 차원 못지 않게 중요하다

과거 30여 년 간의 역사를 보면 문예진흥원의 기능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역시 순수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었다고 여겨진다. 인간의 마음을 작은 소우주로 보고 그 곳에 양식과 감동을 전하려는 순수예술의 가치는 시장이나 대중의 반응과 일치하지 않기에 국가 차원에서 순수문화예술을 지원해야하는 당위성이 있었다. 민간 예술인들이 중심이 되어 지원 사항을 결정하는 위원회 제도가 생산적이고도 창의적인 결실을 거두길 기대하면서 먼저 실천보다는 인식의 차원을 얘기하고 싶다. 현장성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음악계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자료 수집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깊이 있는 심성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추고 있는 음악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 2005년 2월호에 실린 음악평론가 김춘미 교수의 글을 보면 위원회가 현 상황에 대해 자세한 파악을 해야한다는 취지의 글이 실려 있다. 필자는 이 취지에 공감하는 바여서 그 글의 일부분을 인용한다.

'다시 말해서 현재 우리 나라가 향유하고 있는 음악 전체에 대한 다양하고 전체적인 파악을 위한 연구 없이 위원회의 실질적인 문화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란 생각이 든다. 그런 면에서 연구부서의 설치를 즉각 구현할 수 있는 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업무분담이나 성격 규정은 점차적으로 보완한다 하더라도 순수문화예술(기초예술이라고도 불리는)에 대한 지원사업이 보다 높은 효율성을 거

지구촌 곳곳에서 새로운 예술적 발상과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그로 인해 국내 음악인들의 성향이 변화를 겪게 되는 현실에서는 국내 · 외적인 동향 파악이 중요하다. 국내의 현실과 동향을 파악하는 역량은 외국의 동향을 수용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Paradigm

〈제1회 대한민국작곡상〉 시상식 장면

두기 위해서는 음악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이고도 정확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 방편으로서 현 상황 인식과 동향 파악을 위한 연구부서나 연구기관이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와 같이 지구촌 곳곳에서 새로운 예술적 발상과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그로 인해 국내 음악인들의 성향이 변화를 겪게 되는 세상에서는 국내와 국외의 동향 파악이 몹시 중요하다. 국내의 현실과 동향을 파악하는 역량은 외국의 동향을 수용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에 이미 성숙된 기반이 존재하는 영역을 위해 외국에 연수를 보내는 재원을 쓸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렇듯 국내의 현실과 동향 파악은 외국과의 관계 설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므로 국내 음악계의 자세한 현 상황 파악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연구 기능과 함께 홍보기능도 강화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타기구나 행정 라인과의 연계 차원도 중요한 덕목이라고 여겨진다. 특히나 지방에서 열리는 음악회에 가보면 그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한 홍보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 자치시대에 걸맞게 문화예술인들이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폭넓은 홍보망이 구축될 필요를 느낀다.

위원회와 소위원회에 거는 기대

예술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소위원회의 활성화와 운영의 성과가 앞으로 위원회의 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다. 음악 지원을 논의하는 소위원회는 현재 음악문화의 동향을 섬세하게 인식하고 과거 전통의 미덕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세기 중반부터 세계 예술음악계의 성향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20세기 전반까지 세계 예술음악계를 주도하던 유럽 대륙의 음

악은 막강한 위상을 유지했다. 그렇지만 20세기 중반에 들어와 거의 모든 대륙에서 예술음악이 양산됨에 따라 문화적 특수성과 전통이 베어든 예술음악들이 양산되고 있다.

이렇게 다원화되고 복잡화된 예술음악계에서 한국의 예술음악 성장과 전파에 도움이 되는 지원체계를 추구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미래에 대한 안목을 지닌 음악계 인사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청취하고 꾸준한 동향 파악을 견지하여 보다 생산적인 지원 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술적 다양성과 복합장르 차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와 소위원회에 부탁하고자 하는 점도 있다. 필자가 보기에 현대의 젊은이들은 장르와 스타일의 인식과 구분에 있어서 예전의 젊은이들보다 자유로운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젊은이들의 성향은 장르간의 넘나듬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위원회와 소위원회는 젊은이들의 성향을 존중하고 그들의 매력과 끼를 존중하고자 하는 모습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위원회의 구성 세대가 중년 이상의 인사들로 구성되었기에 세대간의 차이를 엿보고 그에 따라 나름대로 차별성 있는 지원정책을 행하는 것도 중요한 덕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음악분야 소위원회의 중요성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일 것이다. 소위원회는 지원을 요청한 음악인들의 소양과 열정, 발상의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지닐 것이다. 따라서 소위원회 위원들의 양식과 가치 평가에 대해 음악인들은 많은 관심을 보일 것이다. 많은 음악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소위원회가 구성되길 희망하는 바 이다.

기부금 활성화도 중요한 덕목

과거 한국의 예술인들은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기부금을 부탁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제 기부금을 청하는 행위에 대한 인식은 달라지고 있고 실제로 후원업체를 잘 끌어오는 예술인의 노력은 미덕으로 여겨지고 있다.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라는 모토에 걸맞기 위해서는 국가 재원을 민간이 행사한다는 맥락과 함께 민간 차원의 재원을 문화예술계로 끌어오려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본다.

이런 노력은 기업과 예술인들을 연결시키며, 각 지역의 재원을 지역 예술인들과 연결시키는 생산적인 연결망의 구현과도 관련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민간 기부금의 활성화'가 중요한 항목이 된다. 앞으로 위원회와 소위원회는 일반 국민과 기업의 문화예술 기부 확산을 위한 사회적 · 제도적 환경 조성에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부문화 확산을 체계적으로 펴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국제적 교류와 해외전파를 위한 지원들도 중요한 항목이다

그동안 문예진흥원은 '국제회의 및 행사교류 지원' '국제문화행사 개최 및 참가' '공연교류활동 지원' '문화예술국제교류 지원' '문화예술인사 및 단체교류 지원' '재외동포문화예술교류 지원' '문예인해외연수사업' 등의 항목으로 국제적 차원에서 한국예술의 전파와 소통을 지원해왔다. 그런 사업들은 국제적인 문화예술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개최 지원을 통해 국내 문화예술의 해외 선양 및 국제교류 증진을 도모한 것들이었다. 한국음악교육협회, 아시아작곡가연맹 한국위원회, 한국작곡가협회, 창악회, 한라소년합창단 등 많은 단체들이 외국과의 문화 교류에 있어서 지원받았다.

외국 유학을 통해 유입된 국제적 차원의 교육 정보와 함께 진흥원의 국제성 차원의 지원은 이제 한국음악계의 연주력 향상과 창작력 향상을 통해 어느 정도의 결실을 거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문화선진국으로의 도입을 보다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정보를 국내에서도 충분히 접할 수 있는 보다 생산적인 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여기에는 인터넷을 통한 정확하고도 생산적인 네트워크 구축, 세계 각지 대학들과의 활발한 교류, 현지 교포와 유학생들을 통한 폭넓은 자료수집 등이 포함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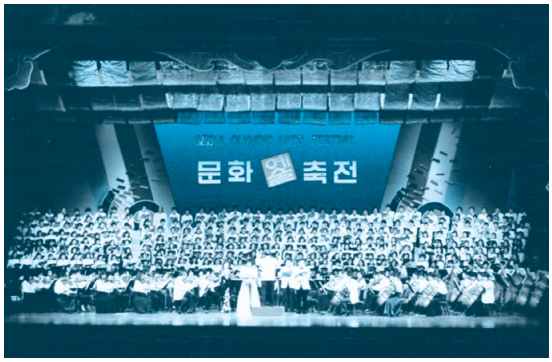
공연 외의 감상 매체에 대한 고려

현재까지 문예진흥원에서 행해진 지원사업들은 주로 공

음악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음악평론을 비롯한 인쇄 매체에 대한 지원도 보다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 지원금을 받은 공연들의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도 이러한 영역들의 측면 지원이 강화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Generation

연을 성사시키기 위해 지원되는 맥락이었다. 그렇지만 공연장 외에 음반이나 악보, 기타 감상 매체와 연구 활동을 위한 지원체제 역시 중요한 항목이라고 여겨진다. 과거 지원 내용을 보면 학술적 연구와 평론활동을 위한 지원들이 있었다. 그런 사업들로는 '음악연구활동 지원 및 음악단체활동 지원' '음악평론활동 지원' '악보집 발간 지원' 등이 있었는데, '음악연구활동 지원 및 음악단체활동 지원'의 경우 1987년에서 2001년까지 모두 95건의 행사에 284,638,000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지원금을 받은 단체와 행사로는 창악회, 한국관악협회, 한국고음반연구회, 우리가곡연구회, 한국여성작곡가회 등 다수이다. '음악평론활동 지원'의 경우 1987년부터 1990년까지 지원이 이루어졌고, 음악팬클럽의 「음악방」 발간과 음악평론가협회 〈한국의 오늘의 음악〉 행사 등이 지원을 받았다.



〈문화예술축전〉공연 장면

그렇게 이루어진 지원과 함께 현대의 디지털 시대에 발맞추어 보다 폭넓고 효율적인 학술활동 지원 및 감상 매체 활성화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나 국가적으로 기념해야 할 음악들의 음반 제작 및 인터넷 감상, 인상적인 공연들의 DVD 제작 등 공연장에 가지 않고도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감상 매체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가 요구된다. 아울러 음악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음악평론을 비롯한 인쇄 매체에 대한 지원도 보다 폭넓게 이루어져야한다. 지원금을 받은 공연들의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도 이러한 영역들의 측면 지원이 강화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예술위원회의 생산적이고 활기찬 문화행정을 기대하며

이번에 발족된 예술위원회는 문화선진국으로 진입을 보다 빠르게 가속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런 노력이 밑거름이 되어 한국 음악계의 발전이 가속화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풍부한 의견 수렴, 과거의 사례들에 대한 섬세하고도 구체적인 분석이 전제되어야할 것이다. 아직까지 한국의 음악계는 역사적 자료의 데이터 베이스화나 평가적 차원의 분석에 있어 보강해야할 점이 적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더불어 외국의 성공적 지원 사례에 대한 폭넓은 정보 수집은 필수적일 것이다.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역량과 함께 지구

1994년〈제1회 전국청소년종합예술제합창제〉 장면

촌 시대에 걸맞는 국제적 호환성을 중요시하는 것 역시 중요한 덕목이라고 여겨진다.

예술위원회가 예술음악의 유통적 측면에 대해서도 권한을 행사한다면 유통적 차원에서의 동향 파악도 넓은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음악의 생산과 수용, 각종 매체의 중요성, 국제적 동향과의 관계, 음악 수용자들의 수준 향상 등 이제 음악계를 구성하는 요인들과 변수들은 더욱더 다원화되고 있다. 이제는 작곡가의 입장을 존중하거나 기념하기 위한 회의에 그에 필요한 음반제작자나 인터넷 전문가도 참석해야 하는 시대라고 생각된다.

지원이 행해지는 양상에 있어서 아직까지 후원자와 수혜자의 2원적 관계는 유지되고 있다. 예술위원회는 작곡가와 연주자들을 지원할 것이고 작곡가와 연주자들은 그런 지원을 통해 자기 세계를 표현하는 공연을 펼칠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양자 관계 외에 지원 결과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요인들과 변수들을 생각해야할 때다. 예를 들어 국가의 지원을 받은 창작 음악들을 CD로 제작해 젊은 학생들에게 들려준다든지, 또는 악보로도 출판해 외국의 도서관에 기증하는 일 등이 있을 것이다. 지원을 받은 작품들의 사후 관리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다.

이번에 발족된 예술위원회가 과거의 노력과 유산을 이어받아 보다 생산적이고 활기찬 문화행정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아울러 음악인들을 포함한 많은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노력과 발상의 차원에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 위원회로의 전환이 갖는 목표는 문화예술이 갖는 의미를 우리 삶 속에 보다 풍부하게 투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와 함께 문화예술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견인적 역할을 증진시키는 것도 중요한 덕목이라고 여겨진다. 개인의 삶과 국가의 발전 모두에 많은 도움을 주는 의미 있는 예술위원회가 운영되길 기대한다.